

[자료해석]

[1번] ㉔

- ㄱ. (1문단) 또한, 2024년에는 '기타'를 제외하고 '학원'의 이용용도 비중이 가장 작았고, 그다음으로 '업무', '쇼핑'의 순이었다. → 학원이 최하위이고 업무가 뒤에서 2등이어야 하는데, 쇼핑이 업무보다 작음. ①, ②, ③ 소거하고, 보고서 순서대로 보기에서 ㄷ 맞춰보기로 전환.
- ㄷ. (3문단) 공용자전거 A의 이용 시 불편사항으로는 '무거운 자전거'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대여소간 연계성 부족', '잡은 고장'의 순이었다. → '잡은 고장'이 '대여소간 연계성 부족'보다 큼.

[2번] ①

- A: 한 도로종류만 확인해도 답을 낼 수 있음. 맨 위부터 보면 버스가 눈에 띄게 가장 작음.
- B: 2024년 고속국도에서는 승용차의 비중이 [52, → 36,]이고, 일반국도는 [13, → 10,]임. 전자는 70%가 안되지만 후자는 70%를 넉넉히 넘음. 고속국도가 더 작음.
- C: 2024년 지방도 교통량 소개는 전년 대비 감소했고 버스 교통량은 증가했으므로, 버스의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함.

[3번] ㉔

- ㄱ. 원칙대로라면 눈이 피곤해 안 풀 선지인데, 오른쪽을 속 보니 나머지 선지들도 눈이 피곤하긴 마찬가지일 것 같으니 그냥 검증함. <표 2>와 맞춰보면 틀린 점 없음. ③, ④, ⑤ 소거.
- ㄴ. '2021년 분야별 재정지출 구성비'는 <표 2>에서 2021년의 '계' 대비 각 분야의 비율로 도출됨. 가장 큰 사회복지부터 맞춰보면 차트에서는 30%가 안된다고 하는데 표에서는 [560 → 185]로 봐도 30%를 넘음.
- ※ 가장 가장 큰 구성비부터 계산이 틀리게 설계한 차트는 최근 기출에서도 등장한 바 있음(23_5_11번). 그러나 보편적으로 '먼저 풀' 차트로 추천할 만한 형태는 아니며(항목이 너무 많아서 흑시라도 옳은 차트면 운영 망함), ㄴ 시도에 조금이라도 자신이 없으면 공략 ㄷ을 보러 가야 하고 ㄷ은 무난하게 단순 확인으로 검증 가능.

[4번] ④

- ㄱ. 중부 지방은 2020년보다 기간이 짧은 행이 없지만, 남부 지방은 위쪽이 2020년보다 긴 46일이 있음. ①, ② 소거.
- ㄴ. ㄱ을 풀면서 남부 지방 기간을 모두 스캔했다면 아까 본 46일이 유일하게 40일 이상인 해임을 떠올릴 수 있음. 그 해 중부 지방의 기간도 40일 이상이니 옳음. ⑤ 소거.
- ㄷ. 2014년은 7월 2일부터 28일이므로 7월 29일이 종료일임. 2017년에 장마 기간이 29일이면서 7월 29일에 끝났다면 시작일은 7월 1일임. 6월이 아님.
- ※ '기간'은 날짜 차이 + 1로 계산됨. 즉, 7월 2일부터 28일의 기간이라면 7월 2일과 날짜 차이가 27일 나와 함.

[5번] ⑤

- ① A대학은 정확히 60명 선에 있고, B대학은 40명 선부터 세어 보면 23명이 더해져 있으므로 3명 많음.
- ② A대학 지원자 수는 1,200명보다 많고 B대학은 800명보다 조금 많은 수준임. 1.2배보단 당연히 더 차이 날 것임.
- ③ 막대 크기를 직관적으로 관찰하면 옳은 선지.
- ④ A대학이 모집인원 60명 - 지원자 1,200명 초과로 20배 이상이 맞고, B대학은 모집인원이 그보다 많고 지원자는 적어 경쟁률 낮은 게 맞음.

[6번] ③

무과제도가 존재했던 1402년부터 1894년까지 천 명 이상의 무과급제자를 배출한 연도수는 14개였고, 그중 10개 연도가 1618년부터 1894년 사이였다. → ① 사용

특히 1676년에는 17,652명의 무과급제자가 배출되었다. → ①로 해결

예를 들어, 조선 초기에 15년이나 16년에 한 번씩 시행했던 증광시는 조선 중기 이후 5년이나 6년에 한 번씩 시행하였으며, 별시의 시행도 잦았다. 특히 정시와 알성시, 외방별시는 조선 초기보다 후기에 더욱 많이 시행되었는데, 1608년부터 1894년 사이에 정시 194회, 알성시 56회, 외방별시 32회가 시행되었다. → 대응되는 선지 없음

1608 ~ 1894년 동안 무과급제자의 주요 성관 비중을 살펴보면, 김해-김씨 5.1%, 전주 이씨 4.7%, 밀양 박씨 4.0%, 경주 김씨 2.2% 등이었다. → ② 사용

또한, 광해군 이후 무과급제자의 출신지역 비중을 살펴보면 칠종 채위-거간짜자 출신지역 비중이 가장 컸던 지역은 한양 또는 경기였고, 전라 출신 무과급제자의 비중은 효종 채위 거간에는 19.6%였으나 이후 감소하다 헌종 채위 거간부터 다시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 ④ 사용

... 고종 채위 기간에는 신입 군영 장군 33명 중 문과급제자 출신이 8명이었다. → ⑤ 사용

[7번] ③

- ① 미집행 인원 빈칸을 채우기 귀찮는데, 나머지 선지를 속 살펴보니 거의 다 미집행 인원을 언급하고 있어서 채우는 게 의도인 문제 같음. 미집행 인원 계산 구조가 전년 + 당해신규 - 당해폐지와 같으니 배경지식에 기반해 금방 이해하고 계산에 착수해 전부 채워 버림. 전년도 미집행 인원 (확정 - 변동)을 더하면 됨. 빈칸 순서대로 39, 49, 51, 50, 44로 채워지고 가장 적은 연도는 2023년이 아님.
- ② 해당 기간 집행 인원은 6명, 감형 인원은 그 3배가 안되는 17명임.
- ③ 조건문 선지이지만 집행 인원이 있는 해가 없는 해보다 훨씬 적으므로 정방향으로 해결함(②를 풀어 집행 인원 열을 관찰함). 집행 인원이 있는 3개 행은 모두 미집행 인원이 전년 대비 증가했음.

[8번] ④

- ① 막대를 통째로 보면 조세수입이므로 높이를 관찰하되, 애매한 구간은 국세와 지방세 막대의 차를 관찰해 봄. 예컨대 22→23 구간은 국세가 8 빠지고 지방세는 그보다 크게 늘었으니 통과임.
- ② 국세 수입은 23년 285에서 24년 344로 60가량 증가함. 이는 285의 20%를 넘음.
- ③ 지방세는 22년 90에서 23년 102로 10%보다 유의미하게 크게 증가했고, 나머지 구간들은 모두 이보다 작음. 23→24 구간은 아주 정확히 10%에 가까우므로 비교가 안 됨.
- ④ 상대비 따지거나 해야 하는데 귀찮으니 일단 ⑤를 살펴봄. 그런데 ⑤가 더 간단함.
- ⑤ 2024년 국세와 지방세 차이가 230쯤 되는데 이보다 큰 차이가 나는 연도는 없음.

[9번] ④

- ㄱ. 환승유입과 환승유출 각각 가장 큰 값부터 찾아 보는데, 1위부터 다른 행에 있음. 환승유입은 저 밑에, 환승유출은 그 행의 값(14,...)보다 큰 게 위에 보임. ①, ⑤ 소거.
- ㄴ. 표 구조상 하차가 순하차와 환승유출의 합이므로, 순하차가 빈칸인 행은 환승유출이 하차의 과반인지를 확인하면 됨. 모든 행이 선지의 진술에 부합함. ③ 소거.
- ㄷ. N의 순승차와 순하차 차이는 13명이고, 이보다 작은 차이가 나는 역은 없음. (다른 행들에 비해 차이가 매우 작으므로 비교군이 몇 개 없음)

[10번] ③

- ① <표 1>에서 전체 건수가 12,---건이므로 5%면 600을 넘을 텐데, 정부 건수는 이에 못 미침.
- ② <표 1>에서 의원 발의 건수가 11,573이고 계류가 9,096으로 관찰됨. $115 \times 8 = 920$ 이므로 80%보다 작음. (이 계산이 수월하지 않다면 일단 넘겨야 함)
- ③ <표 2>에서 여성 발의 건수는 2,559이고 법률반영 건수는 522로 관찰됨. $255 \times 2 = 510$ 이므로 20%보다 큼.

[11번] ②

- ㄱ. 경제통상국의 건당 보도횟수는 A, B, C의 가중평균으로 계산될 것이고, 가중치는 '건수'가 됨. 유일하게 5회 이상인 A가 보도건수 176건인데, C가 그보다 많은 204건의 보도건수를 가짐. A와 C만 보면 5.49와 4.46의 산술평균(5보다 작음)보다 C의 4.46 쪽으로 더 기울어질 테고, 남은 B도 4.21회이므로 경제통상국 전체는 5회 미만으로 떨어짐. ①, ④ 소거.
- ㄴ. E의 해당 비중은 855 → 560으로 관찰되는데, 당장 정확한 비율을 어렵 하는 게 애매하니 비교군인 D와 F를 먼저 관찰함. D는 보도횟수가 더 적고 신문은 크니 E보다 비중이 큼. F는 E와 비교했을 때 신문에 비해 보도횟수가 훨씬 더 큰 비율로 작으므로 역시 E보다 비중이 큼. ③ 소거.
- ㄷ. 현재 농업정책국의 보도율은 [399 → 290]으로 계산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각각 10을 더하면 [409 → 300]이 됨. 4 → 3이 정확히 75%인데 앞에 수가 더 붙어 있으니 75%보다 작음.

[12번] ④

- ㄱ. 농촌에서 면적 500 이상인 센터의 비중은 [76 → 40]이고, 도시에서 면적 100 미만인 센터의 비중은 [180 → 99]임. 도시의 수가 예뻐서 먼저 계산해보면 정확히 55%가 나오는데, 농촌은 50%를 취했을 때 벌써 38이나 되어서 55%까지는 못 감. ①, ② 소거.
- ㄴ. 전체 중 농촌의 비중은 <표>의 계를 이용해야 하는데, 전체 값이 주어 지지 않았으므로 상대비 [76 → 180]으로 관찰하기로 함. 같은 방식으로 100 이상 200 미만 중 농촌의 비중은 [9 → 28]로 관찰됨. 후자는 3배를 넘는데 전자는 그렇지 않으므로, 전자의 비중이 더 큼. ⑤ 소거.
- ㄷ. <그림>에 센터 1개소당 간호사 수가 있으므로 <표>에 곱하면 간호사 수를 구할 수 있음. 농촌은 [76 × 6.28], 도시는 [180 × 9.06]으로 관찰됨. 76 → 180은 2.5배가 안되고, 6.28 → 9.06은 1.5배가 안됨. 2.5 × 1.5를 해도 4가 안되니, 4배 미만임.

[13번]

- ㄱ. <표 1>에서 조정중재성립 구성요소 중 중재가 거의 없다시피 하므로 그냥 더해서 채워 풀면 될 듯함. 2019년의 합의와 성립을 합하면 예쁘게 1,030이 나옴. 드러난 수들은 모두 이보다 작고, 2023년의 합의, 성립, 중재 수치를 관찰해 보면 더해서 1,030은 안됨. ④, ⑤ 소거.

- ㄴ. <표 1>에서 조정중재성립률의 구성요소인 각하가 다른 두 요소에 비해 너무 작으므로 일단 무시함. 그러면 2020년의 조정중재성립률은 [1,624 → 982]로 관찰되는데 바로 밑에 종료는 더 적고 성립은 더 많거나 비슷한 행들이 보임. ① 소거. (해석이 수월하지 않다면 일단 넘겨야 함)
- ㄷ. <표 2>에 기관유형별 조정중재성립 건수가 그대로 나와 있음. 매년 병원이 가장 많음.

[14번] ①

- ① '2023년 조정 건수 구성비'는 <표 1>에서 조정중재종료 건수를 이용해서 어렵할 수 있음. 조정중재종료가 조정 + 중재인데, 아까 13번에서 생각했듯 중재의 존재감이 거의 없다시피함. 따라서 1,460 대비 조정의 각 항목 비율을 차트에 맞춰보면 됨. 큰 값부터 맞춰보면 합의가 60% 조금 넘는 건 그럴듯하니 넘어가는데, 부조정이 20% 가까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됨. [1,460 → 120]인데.
- ※ 열도당도않은 계산이라 불필요하지만, 굳이 차트 만든 패턴을 분석하자면 부조정은 8.2이고 결정이 17.5가 나와야 함. 십의 자리 1을 다른 데 붙여둬.

[15번] ①

조사결과, 2024년 '상급' 직급 정원 비중은 '갑'기관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보다 컸다. → 1급과 2급의 합이 전체의 약 10%에 못 미치는 C 소거.

한편, '갑'기관의 '중급' 직급 정원 비중은 40% 이상이지만, '유사업무 수행 공공기관'의 '중급' 직급 정원 비중보다는 작았다. → 3급과 4급의 합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가 버린 B, D 소거.

또한, '갑'기관의 '하급' 직급 정원 비중과 '유사업무 수행 민간기관'의 '하급' 직급 정원 비중의 차이는 30%p 이상이었다. → 5급과 6급의 합이 40% 선엔 한참 못 미치는 E 소거.

[16번] ④

- ㄱ. 남성과 여성 열의 단순한 대소비교. B, C 2개임. ①, ⑤ 소거.
- ㄴ. 인구가 가장 많은 E부터 내림차순으로 보면 E는 [4,1 → 4,4] D는 [1,6 → 1,7] C는 [1,1 → 1,0]으로 관찰됨. DC 구간은 남성이 더 많다가 적어졌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고, ED 구간은 다음과 같이 비교됨(증가율로 전환).
D: 정확히 1/16로 간주
E: 3/41이니 1/16보단 큼. ③ 소거.
- ㄷ. 여성 중 읍 비중은 [13,1 → 6,3], 남성 중 면 비중은 [13,8 → 7,2]로 관찰됨. 대상 차이가 900 정도밖에 안되어 13,1을 기준으로 하든 13,8을 기준으로 하든 10%가 안됨.

[17번] ④

- ㄱ. <표 1>에서 단순 비교. 맨 왼쪽부터 바로 공공연구소가 많음. ①, ⑤ 소거.
- ㄴ. 중소기업은 8,775, 유상기술실시 5,441을 먼저 관찰하고, 여집합 항목을 관찰해 봄. <표 2> 쪽은 항목도 많고 수치도 커서 빠기 귀찮지만 <표 3>의 여집합들은 수치가 얼마 안되므로 이쪽을 빠기로 함. 선지의 기준대로 중소기업의 50% 이상이 되려면 4,400 언저리여야 할 테니 4개 항목을 더해 1,000이 넘어가면 위험해지는데, 넷을 더해도 1,000에는 한참 못 미침. ③ 소거.
- ㄷ. <표 2>에서 유상양도와 무상양도의 합과 전체의 비를 따짐. 25%는 곱하기 귀찮으므로, 저 합에 4를 곱했을 때 전체 이상이 되면 체크한다고 기준을 바꾸고 시작. 16년과 19년부터의 4개 연도까지 5개가 체크됨.

[18번] ①

- ㄱ. 가장 오른쪽에 찍힌 2024년 점은 폴란드이고, 폴란드의 2014년 점까지의 수평 거리를 그린 뒤 비교해보면 다른 국가들보다 모두 깊. 애매한 비교군은 괄호 안 수치를 이용해서 비교. ②, ③ 소거.
- ㄴ. ㄱ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 가장 아래에 찍힌 2024년 점은 리투아니아이고, 2014년 점과의 수직 거리를 그린 뒤 비교해보면 더 짧은 미국을 발견할 수 있음. ④ 소거.
- ㄷ. GDP 대비 장비비는 국방비 비율과 장비비 비율의 곱이므로, 미국의 24년과 14년 점 중 어느 쪽이 더 우상향해 있는지 봐야 함. 그런데 눈으로 보기 애매하므로 곱셈비교로 전환. 2024년은 $[3.38 \times 29.9]$ 이고 2014년은 $[3.71 \times 26]$ 으로 관찰됨. $3.38 \rightarrow 3.71$ 방향으로는 증가율이 10%쯤인데 $26 \rightarrow 29.9$ 방향으로는 10%를 유의미하게 넘음. 2024년이 더 큼.

[19번] ③

- ① 선지에 언급된 두 지표 모두 판단하기 귀찮아서 일단 스킵.
- ② 2024년 상위 3개는 [54, 45, 29]로 합하면 130, --- 조금 안될 것임. 전체가 175, ---이므로 남은 부분이 45, ---쯤 된다는 건데, 45에 3을 곱하면 130을 넘어감. 상대비가 3배가 안되므로 75%보다 작음.
- ③ 2023년에는 [156, \rightarrow 25,]인데 기준을 160으로 봐도 15%가 24이므로 15%를 초과함. 2024년에는 [175, \rightarrow 29,]인데 역시 기준을 180으로 올려 봐도 15%가 27이므로 15%를 초과함.

[20번] ④

- 7급 자료해석에서 두 번인가 출제된 계산 구조인데, 이렇게 냈으면 어차피 계산 밀어놔야 풀리거나 더 편할 거로 짐작하고 여차하면 쪽 계산하기로 함. 단, 계산 없이도 풀리는 문장 선지가 있을지 모르니 한 번 관찰해보면 ㄷ은 주어진 자료 그대로 풀림.
- ㄷ: 전체가 321이고 C는 33이니 10% 넘음. ①, ② 소거.

남은 선지 중 ㄱ보다 ㄴ이 볼 게 적으므로 A와 E만 먼저 계산. 퇴사자수에 퇴사율을 역산하면 입사자수가 나오므로 이를 먼저 퇴사자수 옆에 필기해둬. 둘의 차이에 순환율을 역산하면 부서인원수가 나오므로 이를 순환율 옆에 필기해둬(ㄴ을 풀 땐 부서인원수가 필요 없으나, ㄱ을 풀지도 모르므로 그냥 해둬).

ㄴ: A의 입사자수는 50명, E의 입사자수는 120명임. ③ 소거.

ㄱ: 고맙게도 A의 퇴사율이 E보다 높는데 부서인원수는 더 적어서 나머지를 계산할 필요 없이 풀이 종료. (A는 15명이 15%이므로 100명, E는 84명이 30%이므로 280명)

[21번] ④

- ㄱ. 2023년까지는 <표 1>에서 차이가 매년 증가했지만, <표 2>에 2024년 과일섭취율이 있으므로 여기까지 봐야 함. 2023년의 차이는 1.6이었지만 2024년에는 1.4로 감소함. ①, ② 소거.
- ㄴ. <표 1>과 <표 2>의 단순 비교. 모두 감소하였음. ⑤ 소거.
- ㄷ. 24년 여자 중학생 조사대상자 수가 14, ---명쯤이고 과일섭취율이 20% 살짝 안되므로 과일섭취자 수는 2,800명이 좀 안되는 정도일 것임. 2020년 여자 중학생 과일섭취율이 정확히 25%이므로 이를 2,800명에 역산하면 10,000명을 넘어감.

[22번] ③

- ① 막대 높이 차이의 직관적 비교. 2024년 막대가 높은 쪽이 4군데이므로 더 많음. (G는 7번째 알파벳임)
- ② 단위가 만 톤으로 일치하니 수치만 단순 비교. 100 넘게 차이 남.
- ③ 2023년 전체가 없어 귀찮으니 일단 스킵.

- ④ C의 증가폭이 60쯤 되는데, 이보다 크게 증가한 곳은 없음.
- ⑤ 이 선지가 옳다면 2024년 발생량 4위인 620보다 평균이 작고, 5위인 392보다는 평균이 커야 함. 항목이 7개이므로 7개 합이 약 2,800 ~ 4,200 범위에 들어야 한다는 뜻임. 큰 값부터 대충 더해 보면 3천 후반대가 나오므로 옳은 선지. (이 선지와 ③번 중 어느 걸 풀지는 취향 차이)

[23번] ②

- ㄱ. 참여자수는 대상자수에 참여율 곱해서 나올 텐데, 2020년에 대상자수는 1% 안되게 감소하고 참여율은 1%보다 크게 증가함. 참여자수는 증가할 것임. ③, ⑤ 소거.
- ㄴ. 2020년 수료율이 나와 있으므로 이를 기준 삼아 판단. 단위가 천 명이므로 콤마 바로 앞자리가 백만 단위가 되고, [26 \rightarrow 9]가 36.5%보다 큰지 판단하면 됨. 바꿔 말해서, 26의 36.5%는 9보다 작은가? 36의 1/4(=25%)이 정확히 9이므로, $36.5 \times 26\%$ 는 당연히 9보다 큼. 따라서 $26 \rightarrow 9$ 는 36.5%보다 작음. ① 소거.
- ※ 공교롭게도, $36 \times 25\%$ 는 23년 5급 24번에서 활용된 곱셈임.
- ㄷ. 2021년의 참여율은 대상자수와 참여자수가 나와 있으니 구할 수 있겠지만, 2022년의 참여율은 참여자수가 없어서 구할 방법이 없음.

[24번] ⑤

- ※ 인구구조지표는 암기 사항임. 밤프콘 스터디원들은 배경지식 활용했으리라고 기대함!
- ㄱ. 선지의 두 지표가 각각 산포도의 두 축에 있으므로, 모든 점이 우상향하는 분포를 보여야 함. 원점부터 올라가며 관찰하면 B까진 괜찮은데 A가 우하향했음. ①, ④ 소거.
- ㄴ. 노년부양비와 고령인구 구성비가 주어져 있으므로 이 둘을 이용하면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를 도출할 수 있음. 생산연령인구(%) 대비 고령인구(%)가 노년부양비이므로 고령인구 구성비를 노년부양비로 나눈 값이 생산연령인구 구성비임. A는 [16 / 56]으로 관찰되니 대충 30%가 안되는 수준인데, 나머지 점들 중 이보다 낮아 보이는 게 없음. ③ 소거.
- (매끄럽게 읽는다면 '노년인구 16이 생산가능인구 ___의 56%구나!'가 됨)
- ㄷ. B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21%이고 E는 9%임. 공교롭게도 선지의 기준값 15%가 21%와 9%의 산술평균인데, 가중치가 될 총인구가 $B < E$ 이므로 고령인구 구성비는 15%에서 E의 9% 쪽으로 더 내려갈 것임.

[25번] ③

- ① 20대의 재학생 수가 40대의 5,950을 훨씬 상회함. 학부·대학원 열에서 쪼개져 있다고 해서 연령대 자체가 쪼개진 것이 아님에 주의.
- ② 대학원 재학생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이고, 학부 대비 대학원 비율은 [5,950 \rightarrow 340]으로 관찰됨. 6%가 조금 안되는 비율인데, 바로 밑의 50대가 [4,430 \rightarrow 280]으로 6%를 상회함.
- ③ 성인학습기 대학원 재학생은 전체에서 학령기 19명을 뺀 1,010명이고, 이것의 90%라면 직장인은 딱 900명쯤 됨. 40대를 제외한 나머지로 이 인원을 전부 채우려고 해도 합이 700명에 꽤 모자라서, 200명 넘게 남음.

[26번] ⑤

- 첫째, 미세먼지 노출시간이 매 1시간 증가할 때, 남성과 여성 모두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증가한다. \rightarrow 2~3시간 구간에서 여성이 감소한 C 소거.
- 둘째 \rightarrow 귀찮으므로 일단 스킵.
- 셋째, 미세먼지 노출시간이 매 1시간 증가할 때, 호흡기 질환 발병률의 증감폭은 여성이 남성보다 크다. \rightarrow 1~2시간 구간에서 남성이 더 큰 A, D 소거.
- 넷째, 호흡기 질환 발병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 미세먼지 노출시간이 4시간일 때가 2시간일 때의 1.3배 이상이다. \rightarrow B, E 모두 통과.

둘째, 남성과 여성의 호흡기 질환 발병률 차이는 미세먼지 노출시간이 3시간일 때가 1시간일 때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이다. → 1시간에서는 0.3, 3시간에서는 1.7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B 소거.

[27번] ②

- ㄱ. 이 제목을 쓰려면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잔액 비율과 가계부채 잔액을 맞춰봐야 함. <표>에서 역산하는 건 머리아프니 차트에 주어진 수치에 비율을 곱했을 때 가계부채 잔액이 나오는지로 판단. 대충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으니(딱히 틀려 보이지 않음) ④, ⑤ 소거.
- ㄴ. <표>에서 가계부채 잔액을 기준 잡고 가계대출 잔액, 판매신용 잔액, 자금순환표 상 개인부채 잔액의 비율을 확인해야 함. 가장 큰 것부터 맞춰보면 가계대출 잔액은 크게 틀려 보이지 않는데, 자금순환표 상 개인부채 잔액은 크게 벗어남. 22년에 가계부채 잔액은 약 2,200이고 자금순환표 상 개인부채 잔액은 약 330이라 17.6%까지 갈 수가 없음. ① 소거.
※ 자신 없으면 풀지 말고 뒷선지들을 살폈어야 한다.
- ㄷ. 주택담보대출 잔액 행에서 단순한 차 비교임. 각 구간을 맞춰 보면 모두 옳다고 검증됨.
- ㄹ. (패턴 학습을 위해 추가) 차트 제목은 [비은행·기타분 잔액 → 예금은행분 잔액]인데, 차트의 수치는 '판매신용 잔액' 행의 수치를 그대로 갖다 씀.

[28번] ①

- ㄱ. <표 1>에서 요양급여비용 - 외래 행을 보고 판단함. 21년부터 순서대로 10% 조금더, 아주 짝퍽 증가, 10% 살짝 안되게, 15%쯤 증가했는지 판단해 보면 크게 틀려 보이지 않으므로 ②, ③ 소거.
- ㄴ. 진료인원에 인당 진료일수를 곱하면 진료일수를 알 수 있음. 인당 진료일수를 각각 20, 30이라고 하면 외래 진료인원에다만 1.5를 곱하는 것과 같은 결론인데, 그럼 입원은 7.5-- 외래는 72,--- 정도가 될 것임. 10배 살짝 안되는 관계가 맞으므로 ⑤ 소거.
※ 자신 없으면 빨리 넘겨야 하는 차트
- ㄷ. <표 2>에서 2022년의 전체 대비 의원~병원의 비율을 판단해야 함. 종합병원까지는 그럴듯하거나 애매해서 스킵하는데 병원이 4%가 안된다는 건 크게 엇나감. 전체가 140만쯤이고 병원이 8만을 넘으니 4%는 무조건 넘음.

[29번] ③

- ① 생후개월별 감염 개체 수는 <표 3>에서 개체 수와 감염률을 곱해 알 수 있음. A의 24~36개월은 [1,465 × 58%]로, D의 36~48개월은 [1,092 × 74.7%]로 관찰됨. D의 숫자가 더 예쁘니 먼저 기준을 잡음. 1,000 × 75%가 정확히 750인데, 곱해지는 수가 10% 큰 1,100쯤 되고 75%에는 살짝 모자라니 대충 820이라고 가정. A는 1,400의 60%라고만 대충 통쳐도 840이 되니 A가 더 큼.
※ 관찰 후 비교가 막막해지는 기분이 들면 스킵해야 함.
- ② <표 3>에서 직접 확인됨. 48개월 이상이 더 낮음.
- ③ 성별 감염된 개체 수 차이는 각 품종의 감염 개체 수에 <표 2>의 감염 개체의 성별 구성비 차이를 곱하면 구할 수 있음. D는 [3.6-- × 14%]로 관찰되는데, A와 B는 구성비 차이가 월등히 커서 비교 대상이 안 됨. C는 [5.5-- × 10%]이니 딱 550쯤 나올 텐데, D의 계산을 해도 550까진 안될 것임. D가 가장 적은 게 맞음.

[30번] ⑤

- ㄱ. <표 2>의 성별 구성비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될 것처럼 생겼지만, <표 2>는 '감염 개체의 성별 구성비'이기 때문에 쓸 수 없음. 이 선지의 제목대로라면 성별로 나뉜 접종 개체 수와 감염 개체 수가 모두 필요함. 그런 자료는 없으므로 ①, ② 소거.

- ㄴ. <표 3>의 24~36개월 행에서 개체 수 × 감염률로 나온 값들을 이용해 작성할 수 있는 차트임. 검증한다면 A가 B보다 크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끝나겠지만, 귀찮으므로 스킵한 선지.
- ㄷ. <표 1>에서의 비율 판단. 모든 수치가 크게 틀려 보이지 않으므로 ④ 소거.
- ㄹ. <표 2>의 C 열을 그대로 가져다 작성할 수 있는 제목임. 수치가 모두 옳으므로 ⑤가 정답.

[31번] ①

- ① 양쪽의 1위부터 확인해 내려가기로 함. 2023년의 부채규모는 <표 2>에서 하수도가 1위임. 하수도의 부채비율은 [504, → 48,]로 10%가 조금 안되게 관찰되는데, 자동차운송이 [167 → 26]으로 10%를 훌쩍 넘음.

[32번] ⑤

- '소나무'는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의 운행시간이 5분 이상이다. <표>의 시간 단위가 '초'이므로 조건을 300초로 환산. 운행속도 → 운행거리 방항으로 300배 이상 나오는 게 소나무일 수 있음. B와 D가 이에 해당함. 필기해두고 다음으로 조건3은 딱 봐도 귀찮아 보이니 풀어도 마지막에 풀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감.
- 대인 2명과 소인 2명의 케이블카 이용요금 총합은 '소나무'와 '돌고래' 사이에서 차이가 가장 크다. 이용요금에서 (대+소)×2의 계산을 해야 하는데, 숫자들이 딱히 어렵지 않으니 그냥 함. A부터 순서대로 53, 86, 36, 60으로 기록되고, 차이가 가장 큰 조합, 즉 최댓값과 최솟값은 B와 C임. 소나무가 BD 중 하나였으니 소나무가 B, 돌고래가 C로 확정됨. ①, ③, ④ 소거.
- 200명의 승객이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이동하기 위한 운행대수를 최소화할 때, 총운행시간이 가장 짧은 케이블카는 '호랑이'이다. A와 D만 비교해서 그중 더 짧은 쪽이 호랑이임. 각 케이블카가 200명의 승객을 옮기기 위한 최소한의 운행대수는 200을 승객정원으로 나눈 뒤에서, 소수점이 있는 경우 반드시 올린 값임. A는 5대, D는 4대를 운행해야 함. 차량을 1대씩 순차적으로 운행해야 하니 운행거리와 운행속도로 운행시간을 구한 뒤 거기에 각각 5와 4를 곱해 비교하는 상황임.

A는 한 번에 대충 190초가 걸릴 거고, D는 360초쯤 걸릴 것임. 시간 차이가 너무 커서 A가 한 번 더 운행한다고 해도 D가 더 오래 걸림. A가 호랑이.

[33번] ④ (1031 동일 유형 수록)

구해야 하는 (가)는 B세트에 들어가고 남은 '소' 크기의 상, 중 사과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트 개수임. 크기별로 구성한다고 했으니 A세트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B로부터 추론을 시작함.

만약 B에 '상'만 10개 들어갔다고 우기면 50,000원이 나와야 하고, 그 상태에서 '상'이 '중'으로 하나 교체될 때마다 2,000원이 줄어듦. 따라서 B는 상 7개와 중 3개로 구성된 세트임.

B에서 쓰고 남은 '소' 사과들을 C에서 남김없이 써야 하므로, B에서 쓰고 남은 '소-상'과 '소-중'의 사과 개수는 특정한 수를 공약수로 가져야 함. 그러나 그게 몇일지 단번에 캐치하기는 어려우므로 B의 세트를 1개씩 늘려가며 남은 수를 생각함.

- B 1개 → 상 31개, 중 19개 남음. 둘 다 소수이므로 공약수 X
- B 2개 → 상 24개, 중 16개 남음. 4가 공약수임. (가)는 4.

[34번] ②

- ㄱ. 2024년의 해당 비율은 [4,300 → 430]으로 정확히 10%임. 따라서 2023년의 해당 비율이 11.5% 이상이면 옳은 선지. 2023년은 [4,500 → 536]인데, 4,500의 12%가 정확히 540이므로 조금 빠져봤다 11.9% 언저리에 있을 것임. ③, ⑤ 소거.
- ㄴ. 귀류법적으로 접근. 만약 월간 구독료가 15,000원 이상인 신문이 없다고 가정하면 2024년에 월간 총 신문 구독료가 3만 원 이상 나온 가구는 그것보다 싼 신문을 3개 이상 구독해야만 존재할 수 있음. 그런데 3만 원 이상 가구수가 구독 신문 수 3개인 가구수보다 많음. ① 소거.
- ㄷ. 40대의 해당 비율은 [1,998 → 803]으로 관찰됨. 딱 40% 조금 넘는 수준인데, 20대가 [842 → 439]로 절반을 넘음.

[35번] ③

모니터는 30인치 이상 크기에 QHD 이상 해상도를 지원하는 제품을 선택 → 을, 병, 무 소거

그래픽카드는 해당 모니터가 지원하는 가장 높은 해상도를 기준으로 그래픽카드 프레임속도 값이 모니터 주사율 값보다 큰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 갑정 모두 UHD 지원, 주사율이 60에도 못 미치는 다, 바 소거

모니터는 단가 대비 주사율이 더 큰 제품을 선택 → 갑은 딱 1/6이고 정은 그보다 작으므로 갑 선택 확정. 이때, 갑 10개를 구입해 발생한 비용과 남은 예산액 필기. 갑은 3,600천 원, 남은 예산은 26,400천 원. (선지가 천 원 단위이므로 천 원으로 통일해야 편함)

그래픽카드는 메모리 용량이 더 큰 제품을 선택 → 메모리 용량이 가장 큰 가와 라는 남은 예산으로 32개를 구매할 수 있는 단가가 아님. 남은 나와 마는 모두 단가가 괜찮고, 그중 메모리 용량이 더 큰 마를 선택.

3,600에 740 × 32를 더하는 상황인데 선지가 모두 정확한 값이니 뒷자리부터 맞춰감. 740 × 2를 하면 십의 자리가 8일 테니 ①, ② 소거. 740 × 2에서 백의 자리 숫자 4가 나올 테고, 740 × 30에서는 백의 자리 숫자 2가 나올 것임. 여기에 3,600의 6까지 더하면 백의 자리는 2가 되어야 함. ③이 정답. ※ 이 테크닉에 능숙하지 않으면 그냥 필산이라도 해서 740 × 32를 빨리 계산할 것. 괜히 머리 쓰다가 시간 더 감.

[36번] ①

발문에서 지시한 '선적 원유의 최종단가'는 정보1에서 나온 적용단가에 정보 2의 품질계수를 곱해 나눔. <표>의 유럽부터 차례대로 계산.

- 갑: 선적일이 9월 18일이고 유럽임. 20일 지난 날은 10월 8일임(9월은 말일이 30일이므로, 말일로 인한 변수 신경 쓸 필요 없이 쉬운 계산 가능). 10월 8일부터 5일간 단가는 73, 72, 70, 70, 68임. 중앙값인 70을 기준으로 편차를 재면 +3이고, 이를 변량 수인 5로 나눠 더한 70.6이 평균 = 적용단가임. 갑은 고품질이므로 여기에 × 1.1이 들어간다고까지 필기해 둬.
- 을: 선적일이 10월 7일이고 유럽임. 10월 27일부터 5일간 단가를 보면 72, 73, 73, 74, 75임. 갑과 같은 방식으로 평균을 재면 73.4가 나오는데 을은 저품질이라 이것이 곧 최종단가임. 갑보다 작으므로 소거.
- 병: 선적일이 9월 22일이고 미국임. 30일 지난 날인 10월 22일부터 3일간 66, 67, 68이니 평균은 67임. 고품질이더라도 갑에게 당연히 밀려 소거.
- 정: 선적일이 9월 4일이고 미국임. 10월 4일부터 3일간 76, 75, 74이니 평균은 75이고, 저품질이라 그대로 확정이므로 갑에게 밀려 소거.

무: 아시아이므로 10월의 현지단가 평균을 봐야 하는데, 무작정 다 더하는 건 바보임. 갑과의 비교만 하면 되고 똑같이 고품질이므로, 무의 평균이 70.6보다 작은지 큰지의 싸움임. 70을 가평균으로 두고 편차의 합을 따져 봄. 70보다 큰 것들로부터 +62가 나오고, 70보다 작은 것들로부터도 -62가 나옴. 평균이 정확히 70이므로 갑이 정답.

[37번] ②

ㄱ. <표 1>을 보면 국회의원의 전체 농지 수가 7개인데, <표 2>에 7개가 모두 있으며 그중 농지만 보유한 국회의원은 없음. ④, ⑤ 소거.

ㄴ을 풀고 나서 ㄴ을 볼 때, [ㄴ이 귀찮아 보임 + 인원수와 그 인원수가 가진 부동산 수가 1개 ~ 4개로 분포되어 있음]으로부터 우기기 아이디어 적용할 문제라고 인식 → 전형적인 우기기 선지인 ㄷ으로 이동해 우선 처리.

ㄷ. 국회의원은 24명이고,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총수는 모두 더해 47개임. 1명이 1개 보유했을 때보다 +23개인 상황. <표 2>에 드러난 +값을 구해 봄. 2개 보유한 사람은 +1, 3개는 +2, 4개는 +3. 모두 계산하면 표에 드러난 부분만으로도 +23이 모두 채워짐. 따라서 표에서 잘려나간 의원 들은 전부 1개만 보유한 의원임. <표 2>에 드러난 알파벳이 17번째인 Q까지이고 이중 1개만 보유한 사람이 2명 있으므로, 나머지 7명까지 더 하면 9명이 맞음.

[38번] ⑤

- ① 2020년의 전체 합격률은 83.7%임. 드러난 두 해는 20년보다 작고, 빈칸인 2023년의 전체 합격률은 남성과 여성의 가중평균으로 나올 텐데 각각 81%와 78.2%라서 83.7%보다 커질 수가 없음.
- ② 2023년에 합격자수가 전년보다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합격률은 올라갔음. 이러려면 응시자수가 합격자수보다 더 큰 비율로 감소했어야 하므로 22년 응시자가 더 많음.
- ③ 빈칸 때문에 귀찮을 테니 일단 스킵.
- ④ 죄다 빈칸이라 귀찮아 보여 일단 스킵.
- ⑤ 2023년 합격자수를 응시자수 × 합격률로 구하는 건 미친 짓이니 우회로를 찾기로 함. 응시자수의 변화율과 합격률의 변화율을 이용하면 비교 가능. 21 → 22 구간에 응시자수는 [33,8 → 33,9]로 0.3%가량 증가했는데, 합격률은 [806 → 782]로 3% 살짝 안되게 감소함. 3%보다 작은 감소율에 미미한 증가율까지 있으니, 합격자수의 감소율은 3%가 안될 것임.

[39번] ②

- ㄱ. 인구 백만 인당(백분율이라고 생각한다)이 주어져 있으니, 총선로길이를 이 비율로 나누면 인구를 알 수 있음. 총선로길이가 큰 순서대로 을, 병, 갑, 정을 보면 나눠 나오는 값도 순서가 맞음. 을은 천 배가 넘고, 병은 백 배가 넘고, 갑은 60~70배쯤 되며, 정은 그만쯤은 안됨. ③, ④ 소거.
- ㄴ. 두 지표 모두 비율을 따져야 해서 귀찮으므로 일단 뒷선지를 봄.
- ㄷ. 볼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 이걸 풀기로 함. 갑의 해당 비율은 [90 → 19,000]이고 을은 [2,294 → 1,980,061]로 관찰됨. 둘 다 세 자리 차이 이므로 90 → 190과 23 → 198로 줄여 봐도 무방함. 갑은 2배 조금 넘는데 을은 8배를 넘으므로 3배 이상이 맞음. ① 소거.
- ㄹ. 을의 해당 비율은 [63,700 → 723,006]이고 정은 [3,900 → 40,343]으로 관찰됨. 정은 10배 하고 거의 딱 차지만 을은 10배 하고도 꽤 남음. 을이 더 높음.

[40번] ㉔

ㄱ. 지급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1분위 ~ 3분위까지만 적용됨. 1분위 세대에 먼저 기준2 ~ 3을 적용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따져 보기로 함.

1인 세대 40% → 그대로 2천 명 → 공급하기 0.1백만 원 → 0.2십억 원(2억)

※ 천 × 백만 = 십억을 뽑아내는 단위환산은 암기 · 체화되었어야 함.

이해했고,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세대도 따진다면

2인 세대 20% → 2천 명 → 똑같이 2억

3인 세대 20% → 3천 명 → 여긴 3억

4인 이상 세대 20% → 기준 3 때문에 어차피 40으로 묶이니 4억

1분위 세대 총액 11억.

2분위 세대는 1분위 세대와 구성이 똑같으니 여기도 11억.

3분위 세대는 1인이 줄고 2인이 늘어난 구성이므로, 11억보다 클 것임.

따라서 1 ~ 3분위 총액은 33억 원 이상임. ㉔, ㉕ 소거.

※ 이 과정에서 중간중간 뽑은 값들(2, 2, 3, 4)은 표에 필기해야 함.

ㄴ. 선지의 변경 사항을 적용하면 ㄱ에서 구해둔 금액에서 3분위의 1인 세대가 빠져나가고, 2인 이상인 세대는 현행 기준과 같음. ㄱ에서 다 계산하지 않은 3분위 세대 부분을 마무리하면 풀릴 것임.

1인 세대 35% → 1.75천 명 → 1.75억

2인 세대 25% → 2.5천 명 → 2.5억

나머지는 똑같으므로, 1인에서 0.25 빠지고 2인에서 0.5 커져 11.25억.

즉, 현행 기준에서 지급 총액은 33.25억 원임. 여기에서 3분위 1인 세대의

1.75억을 빼면 정확히 31.5억 원이 나옴. ㉑ 소거.

ㄷ. <표 1>에 총세대원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4인 이상 세대의 세대원수를 구할 수 있음. 1인 ~ 3인 세대원수를 빼면 됨. 이때 표에 1 ~ 3분위의 1인 ~ 3인 세대 각각의 세대원수(=지급액수)가 필기되어 있어야 함(ㄱ ~ ㄴ에서 했어야 할 작업).

1분위는 총 세대원수에서 7천 명을 빼면 4.2천 명이 남음. 2분위도 같음.

3분위 역시 총 세대원수에서 7.25천 명을 빼서 4.2천 명이 남음.

숫자가 전부 4.2천으로 딱 맞으므로 평균 계산은 필요 없어짐. 단위만 체크하면 됨. 여기에서 '천' 단위로 구한 세대원수의 단위를 '억'으로 바꾸면 지급액수였음. '천'에서 '십억'으로 가는 게 백만 배이므로, '천'에서 '억'으로 가는 건 십만 배임. 4.2의 십만 배는 42만이 맞음.